

APEC 성공 '소리없는 기원'

부산농아불자회 80여명 해운대서 삼보일배

부산농아불자회(회장 이해자)는 11월 2일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를 해운대 일원에서 진행했다.

해운대 선프라자 여래선원 앞을 출발, 해운대 동백섬을 거쳐 백사장으로 이어진 이날 삼보일배에는 부산농아불자회 지도법사 도원 신도를 비롯 농아불자회 회원, 여래선원 신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배덕광 해운대 구정장도 함께 참석해 연등을 들고 행렬을 따라 걸으며 농아불자들을 격려했다.

출발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청각장애인 임희규 불자의 수화 발원문이 눈길을 끌었다. 임희규 불자의 발원문은 도원 신도의 통역으로 비로소 소리가 되었다. "부산농아불자회 불자들과 동창 불자들의 3보 1배로써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2005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발원합니다."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묵묵 소리로 대열의 속도를 맞추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앞서 가는 스님들의 뒤를 따르며 속도를 맞춰 나갔다.

삼보일배의 뒤를 등불을 밝혀주고 함께 걷는 이들은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APEC 성공 개최를 함께 기원했다.

제법 씩씩해진 날씨에도 삼보일배를 하는 사람들의 이마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석가모니불 정근소리에 맞춰 진행된 청각장애인들의 삼보일배가 이어지자 지나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을 지켜본다. 간혹 합장하며 반배를 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임희규씨 수화 발원문 눈길

日 청각장애인·시민들 격려

삼보일배를 지켜본 여래선원 신도 고영애(56·해운대구 중동) 보살은 "정상인들보다 선뜻 하지 못하는 일을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걸 보니 너무 존경스럽고 마음이 통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청각장애인 유코와 게이코 씨도



들리지 않는 귀 대신 스님들의 보좌에 맞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부산농아불자회원들.

"처음에는 일본에 없는 삼보일배가 생소했는데 마음을 모아 길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와 닿았다"며 "청각장애인들이든 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삼보일배는 여래선원 법당에서 회향했다. 삼보일배를 끝낸 임희규 불자는 "처음 해보는 삼보일배라 힘은 들었지만 내

가 뭔가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고 뒷바라지한 도원 신도는 "여래선원에서 매일 세 차례 열고 있는 농아불자회 법회를 통해 불심이 깊어진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장애를 넘어 밖을 향해 마음을 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웃어 보였다. (051)939-3114 글·사진=천미희 기자

동문들 십시일반으로 재개원

11월 10일, 부산불교교육원 휴교 1년만에 강의실 마련

17년 전통의 재가 불교 교육 도량인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이 지난 1년의 휴교 끝에 재 개원했다.

새로운 법당 겸 강의실을 마련하고 11월 10일 점안 및 개원법회를 병행할 예정인 부산불교교육원은 그동안 배출된 1500여 동문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하마터면 영영 문을 닫을 위기였던 부산불교교육원을 동문들이 지

켜낸 것이다. 부산불교교육원 법당 내부 공사 등에 자원봉사

지역 특성 살린 강좌 준비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불교와 우리문화를 바르고 쉽게,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포교, 교육해온 도량. 특히 부산지역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1990년 6월부터 여래사 탁아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시설 운수 리 놀이방 개원 3년간 운영했으며 1990년 12월에는 여래사 불교도서관을 개원 불서 읽기 운동도 함께 벌여왔다.

포교와 교육의 선봉적인 위치를 점해 왔던 부산불교교육원의 재개원 소식이

전해지자 동문들의 노력 봉사가 줄을 이었다. 성재도 초대 원장을 이어 원장이 된 박동범 원장 또한 부산불교교육원 1기 출신이다.

동문들이 이처럼 부산불교교육원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부산불교교육원이 불교와 첫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 초발심의 소중함이 잊지 못하기 때문. 게다가 현재까지 32기를 배출한 동문들

이 기수별 모임을 통해 나름의 수행과 봉사를 이어오며 부산불교교육원 출신이라는 자

공심을 잃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고 부산불교교육원 출신 동문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린 부산불교교육원은 불교입문(6개월), 수진 스님의 경전광화(6개월), 참선교실(3개월) 등을 개설한 리 놀이방 개원 3년간 운영했으며 1990년 12월에는 여래사 불교도서관을 개원 불서 읽기 운동도 함께 벌여왔다. 포교와 교육의 선봉적인 위치를 점해 왔던 부산불교교육원의 재개원 소식이

교리 통한 인성교화 방안은?

불교교육연합회 교학연구발표회 개최



불교교육연합회 주최 교학연구발표회에서 청소년을 교화시키는 다양한 방법 등이 발표됐다. 사진은 능인중학교 교법사 일종 스님이 첨단미디어교구를 활용한 교학연구수업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가 주최하는 제35회 교학연구발표회가 10월 28일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불교교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이날 행사에서 일종 스님(능인중학교 교법사)은 불교멀티미디어의 첨단 미디어 교구를 활용한 교학연구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아용 스님(능인고등학교 교법사)은 불교초기경전인 아함경을 중심으로 '불타의 대화법을 통한 교화 방법 연구'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장윤스님과 불교교육원 조용길 수석부회장, 능인중 김용태 교장을 비롯한 전국 종립학교장과 교법사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27일 앞서 불교교육연합회 종립학교장 총회와 교법사 총회에서는 청소년포교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불교정신 함양과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성지순례를 개최하는 안과 새 시대에 맞는 청소년교화 포교매체, 포교교재 개발에 지출을 늘리는 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대구 목적암 진신사리 봉안



경북 영천 팔공산 목적암(주지 성인)은 11월 1일 적멸보궁과 명부전 낙성식 및 지정보살 점안식을 병행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사진).

점안식, 권공, 법문, 시식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과 봉정사 수좌 성묵 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낙성식을 병행한 적멸보궁은 2평 남짓한 규모의 전통사찰양식으로 1년 6개월 만에 지어졌고, 10년간 미얀마에서 유학한 스님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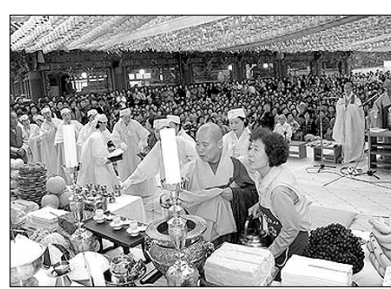
내년 봄에는 60평 규모의 임시 건물을 지어 재가자를 위한 선방 '마음수련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성인 스님은 "재가자들은 스님들처럼 오랜 기간 정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수련원을 개원하면 1개월 단위로 선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불교방송 개국 9주년

대구불교방송이 개국 9주년을 맞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 지원전장결의 뮤직펀치' 특집공개방송을 10월 29일 조계종립 능인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었다.

대구불교방송과 능인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음악회에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이사장 법타 스님, 능인고등학교 김태욱 교장, 능인중학교 김용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일반시민 등 3천여 명이 모여 인기가수 공연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배지선 기자

제4회 도선사 청담문화제 성료



제4회 서울 도선사 청담문화제가 11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이날 행사는 1부 도선사 창건주인 도선 국사를 기리는 1143년 개산대제, 2부 동국

대 이강준 교수의 도선국사 사상 특강, 3부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회의 원 동광 스님, 군중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을 비롯해 2천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도선사는 11월 15일 도선사 중창조사인 청담 스님 열반 34주기 추모대제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청담대중사 사리탑 주변 3천 지정보살 조성 봉안 법회를 병행한다. 강유신 기자

공덕원 개원 25주년 기념법회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주지 효선이)은 11월 2일 공덕원 대법당에서 개원 25주년을 기념하며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대법회'를 병행했다(사진).

실천승화회 회장 효림 스님을 초청 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부경대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 박부흥 지도교수를 비롯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배지선 기자

효림 스님은 법어에서 "지장근본도량인 공덕원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은 지정보살의 자비심과 원력을 받들어 어렵고 소외된 곳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980년 용산 스님에 의해 창립된 공덕원을 이날 개원 25주년을 기념하며 용호초등학교, 용산 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에 총 3백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보현암 불사금 마련 일일차집

대구시 수성구 상동 보현암(주지 선진이) 불사기금 마련 일일차집을 11월 18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대명동 대구불교회관 1층 청류다원에서 개최한다.

주지 선진 스님은 "최근 보현암 바로 앞 250여 평 부지를 교회가 매입해 4층 규모의 문화관 건립공사를 시작했다"며 "50여 평 단층에 불과한 보현암의 수행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창건 50년 만에 처음으로 불사원력을 세우고 기금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현암은 불사금이 마련되는 대로 보현암 뒤 약 50여 평 규모의 영남불교문화연구원 건물까지 모두 합쳐 100평 규모의 대지에 보다 여법한 규모의 수행도량을 조성할 계획이다. (053) 767-0274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조실지유대선사
주지대성전
부주지계전
박물관장경선
총무국장장성
교무국장장성
재무국장장성
사회국장장성
포교국장장성
호법국장장성
연수국장장성
총무부국장장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전화 051)508-3122~5 / www.beomeos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총림대종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4-3000 / 팩스 055)934-3010